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2.3~2015.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2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틴텐최된	불광출판사
3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4	스님의공부법	자현	불광출판사
5	숨-죽음을 통해서 더 환한 삶에이르는 이야기	능행	마음의숲
6	지금이라도알아서다행인것들	원영	불광출판사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8	야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지음	정토
9	가피-제2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편집부엮음	모과나무
10	호흡이주는선물	래리로젠버그외	나무를심는사람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사랑하고 안아주세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혜민 스님 지음 | 수오서재 펴냄 | 1만 4800원

이 책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로 화제를 모았던 혜민 스님의 4년 만의 신작이다. 완벽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 나 자신과 가족, 친구, 동료,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한 온전한 메시지를 담은 이번 책은 그동안 저자가 SNS를 통해 마주한 많은 이들과의 소통 속에서 이끌어낸 생각들의 총집합 모음이다.

편안하고 따뜻한 소통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한 혜민 스님은 이 책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가족과 친구, 동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해,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이 책의 의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완벽치 않은 문제투성이로 가득한 듯 보입니다. 우선 나 스스로만 돌아봐도 부족함이 많지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공부나 일 처리도 생각처럼 잘 해내지 못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뒤돌아 후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나 친구, 동료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는 내 아이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 남편이나 아내의 못마땅한 습관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고 있으면 세상 또한 다툼과 갈등, 사건 사고가 끝없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한 사랑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혜민 스님은 나 자신이 완벽치 않듯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완벽하지 않음을, 그럴수록 더 크고 깊은 사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 안에는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자비한 시선도 함께 있음을 일깨우고, 마치 엄마가 내 아이를 지켜보는 듯한 사랑의 눈빛으로 나 자신을 돌보고 내 본성을 깨치도록 돕고자 한다.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친절한 화법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서 250만 명이 넘는 팔로워와 소통하는 혜민 스님의 글은 이미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지침, 생활 속의 비타민 같은 에너지원이 된다.

혜민 스님의 '마음이 크는 이야기'
SNS통해 대중과 소통한 총집합 모음
부딪치는 인생문제 대하는 자세 다뤄

'어머니가 힘들 때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이 혜민 스님의 책이었다 합니다. 어머니께 선물하고자 합니다' '아침마다 보는 스님의 글은 매일 비타민 먹는 기분이에요'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요즘 너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스님의 어떤 메시지로 이 힘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모든 사람들에게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노력하고 연습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등등.

온라인 서점에 올라온 독자들의 기대평에는 혜민 스님의 글을 접하고 위로와 용기를 얻은 이들의 기다림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도리어 스님은 그간 온라인, 오프라인서 마주한 많은 분들과의 만남이 자신에겐 큰 공부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를 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스승님들이셨고, 제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주신 자비의 화신들이셨습니다."라고 말하며 삶의 현장에서 올라오는 절박하고 현실적인 고민들을 마주하며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었던 삶의 지혜를 쌓았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 과정서 올라온 생각과 깨달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하나의 탑과 같은 존재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들이듯 나 자신에게 공들이세요',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등 나 자신을 돌보는 메시지(자애 편)로 시작하는 이 책은 가족, 관계, 용기, 치유에 이어 '마음의 고요한 지점', '깨어 있음'에 대한 주제(본성 편)까지 총 8장으로 구성된다. 인생의 길목마다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과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김주일 기자

위빠사나와 간화선 통합한 '선수행 길라잡이'

위빠간화선

대현 지음 | 올리브나무 펴냄 | 1만 2천원

"위빠간화선은 특별한 수행처를 찾을 것 없이 일반인도 가정에서 누구의 지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행법을 하루 한 번씩 백일만 읽고 노력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수행의 열매를 훨씬 쉽게 수확하게 해주는 선수행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늘 깨어 있어 알아차리면서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기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저자가 주장하는 〈위빠간화선〉이다.

현재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서 정진중인 이 책의 저자인 대현 스님은 1968년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서 남산정일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으며,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서 안거 후 제방선원서 50안거를 성만했다. 이런 참선 수행의 경험을 통해 대현 스님은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이지만,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 상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중 '위빠사나'를 접한 이후 이를 간화선에 접목, 수행의 바르고 빠른 길로서 '위빠간화선'을 제시하고 나섰다.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다. 처음에는 호흡의 움직임 중에서 '일어남' 하나만을 알아차리다가 어느 정도 대상에 마음이 집중되면 이제 일어남과 꺼짐을 알아차린다. 좀 더 집중이 되면 일어남, 꺼짐, 쉼까지 알아차린다.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가 불러오고, 복부가 불러오면 그것을 '일어남'이라고 알아차리며, '이 뭣고?' 하고 화두를 든다. 숨을 내쉬어 복부가 꺼질 때 그것을 '꺼짐'이라고 알아차리며 '이 뭣고?' 하고 화두를 들어, 들이쉬고 내쉬는 주인공을 찾는다. 들이쉬고 내쉬는 이놈이 '이 뭣고?' 하고 화두를 든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50안거 성만한 저자의 수행체험 담아
두 수행법 접목한 '위빠 간화선' 소개

저자는 "한 공간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 처음 위빠간화선을 시작하는 사람은 들떠 요동치는 업식을 잠재우는 시간이 길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다보면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이 짧아지고 화두 드는 시간이 길어진다."며 "이렇게 열심히 수행 하다보면 화두 의단이 독로해 앉고 서고 가고 오고 말할 때 한결같게 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새로나온책

어머니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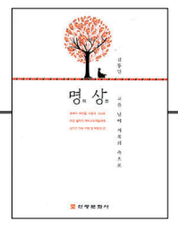
대안 스님 지음 | 기원 펴냄 | 1만 3천원

이번 책은 대안 스님의 세 번째 시집이다. 이 시집은 자신이 그동안 습작한 작품 중 108수를 모아 엮었다. 스님이 주로 대중들과 시를 통해 소통하는 곳은 인터넷과 각종 시화전이다. 그동안 조계사 국화축제를 비롯해 마곡사, 전주 덕진공원 연꽃축제, 동국대 팔정도 광장 등의 행사에서 시화전을 통해 시를 공개했다. 책은 '어머니의 선물' '이룰 수 없는 사랑' '꿈으로 가는 열차' '누가 아느냐' '먼발치에서' '꽃이 지는 날쯤' 등 소주제 6개로 구성돼 있다.

선문염송강설

보경 지음 | 불일출판사 펴냄 | 2만1천원

〈선문염송집〉은 여러 선사들의 어록과 전법을 연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옛 선사들의 문답, 즉 화두 1,125칙으로 만들어졌다. 초판본은 몽고족 침입으로 소실됐다가 그 뒤 진각혜심의 제자 정진국사 몽여가 1,125칙에 347칙을 더해 1,472칙을 수록해 다시 각판했다고 전하는데, 실제로 이 재각된 고칙은 1,463칙에 그친다. 이 책은 부처님의 고화, 화엄경 등의 경전, 서천 28조, 중국의 6조 및 선지식들의 고칙순으로 배열해 선맥의 유통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명상

김동민 지음 | 신광문화사 펴냄 | 1만 2천원

저자 김동민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성장기부터 만 44세까지 그리고 만 65세 퇴직 후로 줄곧 명상을 하며 지냈다. 이 책은 저자의 명상 체험에 대한 결정물이다. 책에는 명상법을 비롯해 주력선과 간화선, 죽음과 근원에 대한 문제 등을 고찰해 놓았다.

저자는 "자복을 체험하고 엄청난 환희를 느끼며 죽음을 극복하고 잔잔한 희열 내지는 마음의 평화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명상"이라고 밝혔다.

선림의 바른길

각암 성원 스님 엮음 | 동진기획 펴냄

조계학인이라고 밝힌 저자는 이 책을 정법안장으로 삼처에서 전법한 석가세존의 수행법을 소개했다고 머리말에서 밝힌다. 책을 살펴보면 정법송과 이에 대한 주해를 달아놓았고, 수행의 묘체인 진성의 설명을 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저자는 "온갖 번뇌망상을 일으켜서 더렵혀진 이 몸이지만, 오묘한 진성을 감통해 도를 이루려 한다면 삼독심을 끊어서 계정혜 삼학을 부지런히 닦아 무명생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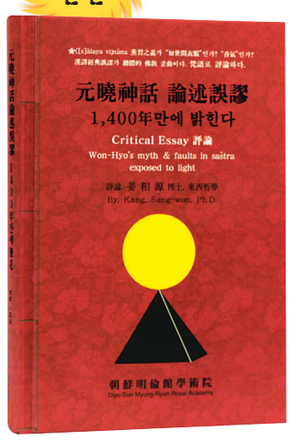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元曉 神話 論述誤謬
1,400年만에 밝힌다
Critical Essay 評論

화제의 신간



원효기신론소에 依據하여 한역경전오류를 그대로 인용 記述(기술)하여 대부분 한문불교용어를 직역하여 기술하였다.
예컨대 薰習(훈습)을 世間衣服(세간의 복) 혹은 香氣(향기)라고 기술하였다.

훈습은 妄心이고 現妄境界이다. 즉 정각실체를 방해하는 작용이다.

如來藏(여래장) 思想(사상)에서 淸淨心如來藏(청정심여래장)과 識藏(식장) 如來藏(여래장) 즉 Alaya 識如來藏을 혼동하여 기술하고 있다. 元曉가 혼동 혹은 오류를 汎(범)한 부분을 2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評論하였다. 漢字佛教用語 5,000字를 梵語(범어)와 漢文으로 정리하고 論述하여 評論하였다.

※ 目次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가격 150,000원
■ 저자 직접 구입 : 강상원
010-9134-4505 / 010-5213-6677
■ 교보문고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朝鮮明倫館學術院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대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값 15,000원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각권 12,000원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